

독일 통일의 날 기념 리셉션

하르트무트 코삭 연방 재무 차관

2013년 10월 8일 (화)

한·독 포럼 공동의장이자 오랫동안 한·독의원친선협회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저에서 열리는 독일 통일 기념행사에 여러분을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지난주 베를린 필하모니 챔버홀에서 열렸던 개천절 기념 행사 및 한·독 수교 130주년 기념연주회의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회를 위해 금난새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마에스트로의 지휘 하에 한·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구성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한국 연주자 절반과 위르겐 브룬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챔버 심포니 소속 독일 연주자 절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연주자들 중 11명은 한국에서, 나머지 13명은 독일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서울대 음대 심포니오케스트라

악장이었으며 유명 바이올린 콩쿨에서 수차례 수상 경력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협연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한·독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한국과 독일의 깊은 우정과 화합의 대화를 잘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먼저 로프 마파엘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님,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의원님들, 한·독포럼의 한국측 의장이시자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이시장이신 김선욱 총장님께 인사의 말씀 올립니다.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는 독일에서 거주했거나 학문과 연구를 하고 돌아온 한국 동문들의 네트워크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이며, 정치, 경제, 기술, 문화 부문에서 한·독 교류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주신 한국 주재 독일기업 대표님들을 비롯해서 토마스 가이어 한독상공회의소 회장님, 독일 정치재단과 독일문화원, 독일학술교류처, 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 대표님들께도 인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한·독 포럼 공동의장이자 한·독 협회 명예회장으로서 특별히 올해 6 월 19일부터 22 일까지 고슬라에서 열렸던 제 12 회 한·독 포럼과 동기간에 열린 제 2 회 한·독 주니어포럼 참가자들과 한·독 교환학생프로그램 'Building Bridges' 참가자들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행사에 바이에른 자유주와 프랑켄 지역의 음식들을 지원해주신 BayWa社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클라우스 요제프 루츠 BayWa社 이사장님과 만프레드 뉘셀 BayWa社 감사 겸 독일 라이파이젠 협회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BayWa社는 농업, 에너지, 건설 부문에 초점을 맞추는 국제적인 거래 서비스 기업으로서 바이에른 경제를 알리는 대표적인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과 식품 부문에서 최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BayWa社는, 주로 농자재 거래와 농산품, 가공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BayWa社의 농업 부문은 핵심지역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농업 부문 세계 10대 기업에 속합니다.

BayWa社の 자회사인 Turners & Growers社は 사과 및 과일거래로 아시아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국에서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 BayWa社가 1923년 창설된 이래로 해마다 흑자를 달성했다는 점입니다. 직원수 17,000명에 달하는 BayWa社の 올해 매출목표는 170억 유로입니다. BayWa社에게 있어서 성공은 언제나 당연시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이미 시작된 국제화 전략과 함께 미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바이에른주는 BayWa社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성공을 거둔 BayWa社は 독일이 통일을 이룬 이래 23년 동안 경제거점으로서의 바이에른주와 'Made in Bavaria'를 전세계에 전파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BayWa社は 이에 대해 마땅히 감사와 존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3년 전에 달성한 일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조국 독일을 위해 통일과 정의 그리고 자유를 이룩한 일을 축하하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그날의 역사적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한 순간입니다. 10월 2일에서 3일로 접어들던 밤 베를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국의회 건물 앞에 모여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고, 자정이 되기 전 긴장감과 기대감이 감돌던 분위기가 떠오릅니다. 자유의 종소리가 떠오르고 통일 독일 깃발이 게양되던 모습, 독일 국가가 울려 퍼지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때 느꼈던 행복감도 떠오르고 그 때 흘렸던 눈물도 떠오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맞이하며 느낀 결속감도 떠오릅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이러한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낍니다.

독일 통일은 독일 역사에 있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1989년, 1990년에는 잊지 못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동독 피난민들의 부다페스트, 바르샤바, 프라하 서독대사관 난입, 헝가리 국경 개방, 월요시위, 장벽 붕괴, 1932년 이후 동독지역 최초의 자유선거, 독일 구연방주들의 부활, 독일 통일에 관한 동서독 협상 및 국제협상 등의 사건들이

일어나더니 마침내 1990년 10월 3일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감동적인 통일축제가 열리면서 이 일련의 사건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중부 및 동유럽의 해방과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공산주의의 폭정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았던 바르샤바 조약국 국민들의 용기였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르 2세의 영향을 받은 자유노조 '솔리다르노시치'가 처음으로 인간을 멸시하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던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대사관으로 뛰어든 동독 피난민들에게 보호의 손길을 건넸고 바츨라프 하벨이 주도한 벨벳혁명은 '통일, 정의, 자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헝가리 정부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여 동독 피난민들이 서독으로 향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철의 장막'이 이미 녹슬고 구시대적인 발상임을 유럽인들의 마음에 새겨주었습니다.

당시 많은 동독인들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메르켈 총리는 당시 '민주약진(Demokratischer Aufbruch)' 정당의 당대변인이었으며 그 후 최초이자 마지막 자유선거로 선출된 동독 정부의 부대변인을 맡았습니다.

1989년 가을에는 많은 개신교도들을 비롯한 용감한 동독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수차례 벌였습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행위가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학살사건이 일어난지 몇 주 안 된 시점이었으니까요.

시위를 벌인 동독인들의 용기는 높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활약이 없었더라면 장벽은 붕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평화 혁명이라는 역사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독일의 전후세대가 국가 재건, 경제 기적, 법치국가, 견고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업적만큼이나 이들의 업적 또한 우리들에게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국과 독일은 40년간 분단의 운명을 공유하였으며 베를린장벽이 붕괴되고 동독에서 평화혁명이 일어난 지 23년이 지난 지금에도 독일의 분단 극복과 한반도의 계속된 분단 상황은 양국을 이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독일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3 년 전인 1990 년 10 월 3 일은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독일은 이 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유일무이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국 역사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도 10 월 3 일은 국경일인 개천절로, 개천절 역시 국가의 통일을 상징합니다. 개천절은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기원전 2333 년에 단군에 의해 건국된 날입니다. 개천절을 직역하자면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이 날은 단군의 고조선 건국을 축하하는 날일뿐 아니라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기원 전 2457 년에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으로 내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개천절은 한민족과 한국의 뿌리를 기념하고 자긍심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저는 한반도가 통일되는 날이 올 것이라 확신하며 한민족이 단군의 정신으로 평화와 자유 속에서 통일한국을 이루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예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1989 년 초에 그로부터 9 개월 뒤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인 1990 년 독일이 통일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국민이 모두 10 월 3 일을 다시 회복한 통일국가의 상징으로 함께 축하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다만 한국의 친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갖지 않으면 조국 통일과 같은 엄청난고 놀라운 과업은 절대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의 분단과 접근정책, 그리고 통일과정의 경험은 한국의 정계와 재계에 한국의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에 대해 분명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10 월 3 일 독일통일의 날과 개천절을 맞이하여 한반도 분단 극복을 위해 한국이 독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극히 겸손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2010 년 10 월 1 일 독일연방내무부의 크리스토프 베르그너 차관과 김천식 통일부 차관이 베를린에서 통일 문제 자문에 관한 MOU 를 체결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MOU 를 통해 독일 통일과정에 관한 정보 및 학문적 지식의 교류를 지원하고 독일의 경험과 지식을 한반도 통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한국이 요청하는 통일 관련 국가 문서와 기타 역사자료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독일연방공화국은 한반도 분단과 분단을 극복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의 경험을 활용하고자 하는 한국 국민들의 바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는 그들만의 역사적, 정치적 상황과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하고 독일 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었던 경험과 지식들을 한국 파트너들에게 기꺼이 전해주고자 합니다. MOU 체결 이후에 독일 통일 과정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과 독일에서 만나 고견을 나누었습니다. 베르그너 내무부 차관, 헬무트 콜 수상의 외교자문이었던 호어스트 텔칙, 로타 드메지에르 구동독 마지막 총리이자 연방특임장관 등도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구동독 <신 포럼>의 민권운동가이며 1990년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국가보위부 해체 감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 역시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이 위원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가우크 대통령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으며 이는 고슬라의 카이저팔츠에서 행한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연설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한국과 독일은 전통적으로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독 외교 관계 수립 1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83년 11월 26일 당시 독일제국과 조선은 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올해는 ㅎ나국의 광부와 간호사가 독일로 파견되는 근간이 된 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해를 맞이하여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2013년 6월 21일 고슬라의 카이저팔츠에서 열린 제 12차 한독포럼 행사 기간 중에 저와 함께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발행된 한독 공동 우표를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신 주독일한국대사께 기념우표 초판 앨범을 전달했습니다. 특별우표는 “전통 정원”을 주제로 제작되어 경복궁 향원정과 바이로이트 에레미타제에 있는 신궁전의 태양신전을 담고 있습니다. 전통 깊은 정원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이

썩트듯이 양국의 전통 정원 모티브는 양국 관계가 역사를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발전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단순한 경제 파트너 이상입니다. 독일과 한국은 오래된 깊은 우호관계와 공동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양국의 우호관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와 정치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우호관계가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연방하원의 기민/기사당, 사민당, 자민당, 동맹 90/녹색당은 지난 6 월 25 일에 한독관계 130 주년을 기념하여 한독관계를 미래에도 더욱 확대하고 모든 차원에서 역동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지속적인 한독관계 발전의 모범이 되는 사례는 강원도와 오버프랑켄, 그리고 고성군과 바이로이트의 친선관계로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버프랑켄 정부와 강원도는 2007 년 협력협정을 체결하였고 2010 년에는 오버프랑켄에 있는 바이로이트와 고성군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건의 협력관계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협력관계는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의 베른하르트 켈리거 소장님과 김영수 사무국장의 중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중개로 강원도와 고성군을 대표하는 고위 인사들이 이미 수차례 오버프랑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얼마 전 고인이 되신 황종국 전 고성 군수님의 명복을 빕니다. 양 지역의 우호관계를 위해 많은 공로를 세운 황종국 군수님의 노력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강원도에는 그밖에도 한국의 분단과 한반도 통일의 희망을 주제로 한 매우 현대적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DMZ 박물관'은 한스 자이델 재단의 중개와 저의 지원으로 독일 뫼드라로이트에 있는 독-독 박물관과 포인트 알파 재단과 협력관계를 체결하였습니다. 또 작년에는 DMZ 박물관에서 제 11 차 한독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은 바이로이트대학의 학자들과 강원도 간의 협력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한스 자이델 재단의 이니셔티브로 작년에 처음으로 남북한 임업 전문가들이 오버프랑켄에서 만나 전문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한독 우호 관계가 얼마나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양국의 우호관계가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은 특별히 의미가 큼니다. 양국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 교류에 관심이 지대하여 학교별로 수많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페그니츠 호텔경영학교와 경동대학교의 교류 프로그램, 에어랑엔대학교 부산캠퍼스를 통한 생물공정공학과(bioprocess engineering) 학생들의 한국과의 깊은 인연 등이 있습니다. 에어랑엔대학교 생물공정공학과 학생들은 직접 주요한 '뢰텔하임' 맥주 200 리터를 오늘 독일 통일의 날 행사를 위해 제공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처음 개최되었던 한독 주니어포럼을 결성하고 작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첫 회의가 열리도록 애써주신 김선옥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님 및 한독포럼 공동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독 주니어포럼은 올해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과장이신 이은영 교수님의 지도하에 고슬라에서 2 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니어포럼'은 양국 젊은이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모아 한독 협력에 반영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만남의 장입니다.

한편 한독협회는 'Building Bridges'라는 청소년 교류 사업을 올해에도 계속하여 한국과 독일 참가자들이 오늘 행사에도 참석 중입니다. '다리 놓기 - Building Bridges'는 한독협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로 독일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후원하고 있으며, 일산의 등대국제학교가 파트너 학교로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학생, 대학생, 직업교육생 및 청년 직업인의 교류가 갖는 큰 의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6 월 25 일자 독일연방하원의 "한독관계의 역동적

발전에 관한 결의안”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양국 청소년 교류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한국 정부와 함께 마련할 것을 연방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한독 주니어포럼과 ‘Bildung Bridges’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많이 참석하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세대를 상징합니다. 저는 이 젊은 세대야말로 언젠가는 10 월 3 일을 독일 통일의 날이자 통일된 한국의 개천절로 함께 축하하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